

## 뉴스위크 '분야별 세계 최고 병원' 평가서 서울아산병원 8개 분야 글로벌 상위권



서울아산병원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시행한 '2022년 분야별 세계 최고 병원' 평가에서 세계 유수 병원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세부 항목으로는 ▲암 5위 ▲내분비 5위 ▲소화기 8위 ▲신경 8위 ▲정

형(외과) 12위 ▲호흡기 27위 ▲심장 35위 ▲심장수술 52위다. 이 중에서 암, 내분비, 소화기, 신경, 호흡기, 심장, 심장수술 분야는 국내 1위다.

올해 초 「뉴스위크」가 발표한 '2021년 세계 최고 병원' 종합 순위에서 세계 34위에 오르며 3년 연속 국내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이번 분야별 평가에서도 8개 부분이나 글로벌 상위권에 오르며 높은 인정을 받았다.

암, 심장 분야는 순위가 상승했다. 암병원은 작년보다 2계단 올라 미국의 엠디앤더슨 암병원, 메모리얼 슬로언 케터링 암센터, 다나파버 암센터, 메이요 클리닉 암센터와 함께 세계 5대 암 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암병원은 국내 최대 규모인 연 평균 2만여 건의 암 수술을 시행하며 연간 100만 명이 넘는 암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시작한 암 통합진료는 매년 4,000건 넘게 시행되고 있다. 심장 분야는 지난해 세계 36위에서 1계단 상승해 세계 35위에 올랐다. 국내 병원들 중 유일하게 글로벌 상위권에 포함됐다. 「뉴스위크」는 글로벌 조사 기관인 '스타티스타(Statista)'와 함께 전 세계 20개국 4만여 명의 의료 추천인단을 대상으로 10개 임상분야에 대한 병원 평가를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실시했으며, 최종 결과를 뉴스위크 공식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 전세계 의사들에게 내시경초음파 술기 전수



소화기내과 서동완·송태준 교수팀은 서울아산병원의 기술 노하우를 전세계 의사들에게 전수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세계내시경협회에 제안해 '국제 내시경초음파 교육 프로그램(WISE, WEO International School of EUS)'을 만들었다. 프로그램은 1년 과정으로 내시경초음파 기술 전반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

현장교육을 시행했던 2018년에는 6명, 2019년에는 9명의 의사가 서울아산병원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교육을 시행하면서 2020년 30명의 의사를 선발해 교육했다. 올해 참가의사 수는 42명이다.

서동완 교수는 "서울아산병원은 전세계 해외 의학자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다. 우리의 노력을 통해 더 많은 환자가 건강을 되찾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아산나눔재단과 공동협력 업무협약



서울아산병원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단이 10월 7일 아산나눔재단과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연구중심병원 육성과제의 주요 목표인 '산업체·학교·연구소·병원 협력플랫폼 구축 및 보건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협력네트워크가 강화될 예정이다.

서울아산병원은 ▲아산나눔재단이 발굴하는 의료·바이오 관련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의학적 자문을 지원하고 ▲병원 인프라 및 네트워크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 아산나눔재단은 ▲연구중심병원 연구 수행에 필요한 참여기업, 유관기관과 파트너링 및 참여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멘토링, 교육, 투자 연계 등을 지원한다. 김종재 아산생명과학연구원장은 "서울아산병원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단은 의료·바이오 분야에서, 아산나눔재단은 창업·투자지원 분야에서 훌륭한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보유한 강점을 공유하고 시너지를 발휘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